

# 「합성수지 산업협의회」 구성에 즈음하여

## — 석유화학협회 내 설치·운영에 반대한다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내에 「합성수지 산업협의회」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공부는 3월12일 발표한 「석유화학 수급안정대책」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폭락, 시장질서가 문란한 LDPE·HDPE·PP·PS·ABS 등 5대 합성수지 시장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합성수지 산업협의회」를 상설화, 업체간 협의·협력체제 구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중반 이후 합성수지 수출가격이 폭락, 일본을 비롯한 미국·유럽으로 부터 한국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세계 석유화학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비난에 대응, 수출가격이 계속 변동비 수준에 머물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출추천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상공부의 「합성수지협의회」 구성 및 「수출추천제도」 도입의사 표시는, 한국 석유화학산업계에서 첨예하게 현안이 되고 있는 5대 합성수지의 과당경쟁을 지양함은 물론 적정가격 수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합성수지협의회」를 한국 석유화학공업협회 내에 설치·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합성수지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효과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이며, 석유화학협회의 운영방식 및 위상 재정립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한국 석유화학협회는 40여개 석유화학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하고 있는 단체로, 「공업발전법」상의 특별단체에 해당되는 위치에 있다. 즉, 누구나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임의단체가 아니며, 재정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설단체도 아니다.

따라서, 석유화학협회는 회원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고 역할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이다.

그러나, 작금 석유화학협회의 운영방식이나 행태를 보면, 위의 목적이나 동기와는 전혀 다른 사적 영리단체와 구분하기 힘든, 덧붙여 관료적 기풍까지 갖은 권위주의적(권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권위 있는 척하는) 단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

일례로, 석유화학협회는 회원사(석유화학기업)들이 생산·판매·수출하는 모든 자료를 매월 보고받아 집계, 상공부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님은 물론 마땅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즉, 오늘날 기업은 특정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며, 국가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은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식을 공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거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의 경영상태 및 실적을 낱알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기업별 경영(영업) 수치를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것은 일본 등 경쟁기업들이 입수, 활용당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부정될 수는 없겠으나 그들은 한국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어느 누구보다는 신속하게 입수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정확하게 한국의 정보를 입수·분석,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다만, 석유화학협회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까닭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소산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에만 공개, 반사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석유화학협회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심적 역할에 충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정한 회장을 비롯한 몇몇 임직원들이 회원사들의 불신을 받고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해체의 대상으로서, 또는 탈퇴를 고려해야 하는 무능한 단체로서 인식되고 있다는 건,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오늘날, 삼성·현대의 무분별한 투자 및 그로 인한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부실화 우려도, 그들의 관료적 무사안일한 행태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합성수지 산업협의회」를 석유화학협회 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난국을 타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화학저널 1992/4/1>